

아직 기대하긴 이르나, 귀찮아 움직이기는 쉽고, 그래도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해야 하고, 그런 '귀차니스트'들을 기쁘게 할 '기적의 약'이 멀지 않아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운동하지 않고도 운동한 효과, 즉 칼로리 소비량을 늘리고 지방을 줄여주는 약을 개발 중이며, 이미 쥐 실험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한다. 이 약이 실용화된다면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달리 비만 걱정을 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약 한 알 먹고, 그냥 누워 빈둥거리며 삶을 즐기게 된다?

인류의 먼 먼 조상이었던 석기시대 사람들에게 '귀차니스트'가 있었을 리 없다. 그때 만약 어느 누가 '귀차니스트'가 되었다면 엄청난 자연과 맹수들, 아니면 동족으로부터도 진작 퇴출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류 조상 가운데 '귀차니스트' 유전자들 가진 분은 없었을 터. '귀차니스트'란 현대문명이 만들어 낸 특별한 증상을 가진 인간군을 이르는 말일 수밖에 없다.

그런 '귀차니스트' 증후군은 '운동하지 않고도 운동한 효과를 준다'는 약으로 치료하겠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약 만능시대'적 발상이다.

눈부신 의료를 발달과 육체적 질병의 치료 약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는 인정하려다 이 같은 '약' 만능 사고가 과연 옳은 것인가는 한번 짚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약물시장의 규모는 어느 산업에 비해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새로



불자 세상보기

김 정 자
칼럼니스트

약의 감옥

운 신약 하나가 인기를 끌게 되면 순식간에 세계 시장을 정복해 버린다. 질병 아닌 회춘약이 되면 더욱 그렇다. '보이톡스(boy+botox)' 신드롬이란 말까지 만들어 낸 약 '보톡스'는 주사 한대로 얼굴 주름을 다림질하듯 짝 퍼 주므로 노년세태 뿐 아니라 중년세태까지 애용자가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중화되었으면 '보톡스'를 치료 약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 예상하겠는가.

의사들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노인성 질환에 비록 검진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치료 수준은 아닌, 적은

량의 치료와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몇 년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국 런던의 템즈 강들에서 우울증의 대표적 약물인 프로자 성분 분을 상당량 검출했다 한다. 영국의 흐린 날씨와 안개 등 기후적 영향뿐 아니라 산업화 이후 증가한 영국의 우울증 환자들이 항 우울증 약물인 프로자를 차 마시듯 복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보면 인간의 약물 의존증은 이제 '약의 감옥에 갇힌 인간'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한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얼마간의 육체적 질병 아닌 신경성 모든 질환에 해당되는 병의 원인은 분명 마음에서 온다.

현대에는 그 '마음에서 오는 질병'이 많다.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여러 신경성 질환이 여기 해당될 듯싶다. 어쩌면 권태와 함께 '귀차니스트 증후군'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 마음에서 오는 질병조차 약물에 의존하려는 것이 오늘의 '약 맹신' 경향이다.

지난 세기 대마초와 각종 마약을 흡입하면서 명상의 나라 인도로 달려가던 미국의 히피들은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지를 쉽게 약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나중에라도 그것이 착각임을 그들이 알아채기나 했을까?

마찬가지로 지구의 초자연적 비밀을 끝까지 밝혀내려고 알려진 미국의 저술가 그레이엄 헨콕은 그의 저서 '슈퍼내추럴'이라는 책에서 마약류야말로 영혼을 고양시키고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라 했다.

정각을 이룬 부처님이 바라문교의 비약으로 알려진 '소마'를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마음에서 비롯된 병은 약물이 아닌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마음에서 오는 모든 질병 처방책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보면 현대인을 '약의 감옥'에서 구해 내는 일도 불교의 몫이다.

결혼이 뭐길래

"고르킨 뭘 골라, 남자만 있으면 무조건 시집 가야지!" 작은 엄마는 신중결적으로 소리 질렀다. 박양은 기가 막혀서 자기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작은 엄마에게 화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양의 어머니는 말머느리였고 아래 동서와 시누이들이 있었다. 박양의 아버지는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편이었는데 동생인 작은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다. 박양의 아버지가 여러 번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작은 엄마는 가끔 박양의 집에 와서 음식이나 물건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곤 하였다. 박양이 보기에는 당연한 듯이 "너희 집은 잘 살았어 형님 덕이잖아. 동생네 좀 도와줘야지"하는 태도였다. 그렇다고 제사나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작은 엄마가 돕는 것도 아니었다. 일 많은 제삿날은 특히 절대 일찍 오는 법이 없었다. 박양은 화가 났지만 신실한 불자인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양과 그 집 짝은 동갑이었다. 둘 다 결혼하지 않고 서른을 넘기자 집안 어른들이 걱정이 많았다. 서른 셋이 되면 어느 날, 작은 엄마가 들어오며 "형님, 우리 00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며 소리질렀다. 무슨 전쟁에 승리한 사람 같아 보였다. "결국 우리 애가 먼저 가게 됐네요!" 아, 글썽 사위가 박사인데 집안도 좋고"하며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았다.

자기 마음만 바로 써라

“너 누구 만나기는 하니?”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⑦ 부처님 마음과 결혼하기

그 때부터 시달림의 시작이었다. 말끝마다 사위 자랑이 빠지는 법이 없었다. 정해진 것처럼 "아유, 형님네는 언제 사위 보나요. 큰일이네." 하는 말로 끝났다. 박양만 보면 "너 언제 시집 가냐?"고 해서 스트레스를 주었다.

한번은 "너 누구 만나기는 하니?"하였다. 박양은 "아니요,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하였다.

옆에서 어머니도 "글썽, 남자가 좋다고 해도 애가 싫다고 하고, 조건도 맞아야 되니" 하였다. 그 순간 작은 엄마는 큰소리로 "아니, 그렇게 나이 들어서 고르킨 뭘 골라!"하였다. "아무나 남자가 좋다면 무조건 가야지. 지금 이것저것 따지게 되었나!"

박양은 기본이 팍 상했다. 어쩌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다. 자기 딸이라면 아무하고나 가라고 하겠는가. 섭섭하고 화가 나는데도 어머니

는 가만히 있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작은 엄마 너무하시잖아요! 엄마는 왜 야단도 안 치세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듯이 "남에게 뭐라 할 것 없다. 모두가 자기 한 대로니 자기마음만 바로 하면 돼." 그러나 박양은 작은 엄마가 너무 야속했다. 빈 말로라도 괜찮다. 좋은 사람 만날 거다 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모르는 남에게도 저렇게는 안 하겠네.

헤아 바뀐 후 문득 몇 달 간 작은 엄마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작은 엄마 요즘 안 오시는가 봐요."하고 물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응, 00집 딸이 이혼했거든." "네? 정말요?" 사정을 들은 후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갔다. "엄마, 개가 이혼한 게 석 달 전인데 이제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으니깐 말하지 뭐 좋은 일이라고 굳이 말하겠니."

평생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엄만 그동안 작은 엄마한테 당한 거 화도 안 나세요? 그런데 개가 이혼을 했더니. 미안하지 만 난 왜 이렇게 통쾌하지." 그동안 시달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이제 자랑할 게 없어서 안 오시나요?" 어머니는 놀라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남이 잘 되는 거 기쁘게 주고 힘든 일은 내 일처럼 자비심을 가져야 돼. 더군다나 가족끼리는 같은 인연이야" 어머니는 "난 그 애나 너를 위해서는 마음이 똑같아. 절에 가면 우리 가족과 똑같이 그 집 축원을 올리고 기도한다. 지금 그 애와 작은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니" 박양은 어이가 없었다. 우리가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엄마는 관세음보살이야.

"엄마, 제가 시집 잘 가서 효도할게요." 그전에는 그래, 하던 어머니가 오늘은 달랐다. "시집만 간다고 잘 사는 거니. 그보다 너도 절에 다녔으면 해." 어머니는 어느 새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박양은 깜짝 놀랐다. "너 내가 말머느리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온 줄 모르지. 너의 진짜 주인인 부처님 마음과 먼저 결혼해라. 그럼 평생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을 거야. 결혼하든 혼자 살든 중요한 건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박양은 얼마 전부터 절에 다니게 되었다. "아직 불교 잘 몰라요. 우리 엄마 때문에 완전 황복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까지 한 번도 누구를 나쁘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엄마처럼 사는 게 부처님 마음이라면 저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학 인 모 집

영남 법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법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7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안 **내**

- ◆ 입교일시 : 2008년 8월 28일(목요일) 오후 3시
- ◆ 교육기관 : 6개월 과정
- ◆ 교육내용 : 일반불교의식 및 재의식
 1. 각종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 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 수강자격 : 식발염의 한 출가 승려에 한 함
-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 수 강 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406호 (서진주 1.C에서 5분거리)
-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법패불음원을 쳐보세요.
- ◆ 문의전화 : (055)747-8419 / 011-867-8419(원장 원명스님)

영 남 법 패 불 음 원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경음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Twin Media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중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벽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